

金馬 報德城의 位置에

대한 考察

— 太平散人 康侯晋의 「遊金馬城記」

發見은 계기로 —

李 康 五

馬韓 百濟의 古都라고 云謂하는 金馬의 周邊에는 몇개의 城址가 있다. 北쪽으로는 朗山城(約 7 km) · 彌勒山の 箕準城(4 km) · 東쪽으로는 天靈山城(4 km) 紆北山城(4 km) · 南쪽에 王儉城(3 km) · 西쪽으로 五金山城이 있다. 以上은 이미 알려진 城址이고 最近에 發見된 金馬의 北쪽, 彌勒山 東쪽에 있는 龍華山(二, 五 km) 城址와 金馬의 西北쪽 市內圈에 있는 西古部里 향정(俗稱 香亭) 部落의 뒷산에 있는 無名의 土城址가 있다 이와같이 수많은 城址들 가운데에는 築城에 대한 史書의 記錄이나 傳說 등으로 남겨진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들 傳記, 傳說들이 모두 事實으로써의 立證이 不足한 曖昧한 說을 免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筆者는 우선 五金山城과 報德城에 가지는 疑問을 提示하고 報德城의 位置比定에 대하여 論述하고자 한다.

五金山城은 金馬의 西쪽에 位置한 五金山에 있다. 五金山은 現金馬市內의 西古部里 서편마을의 主山으로 되어 있다. 높이 一〇〇m에 不過한 山脈의 陵線이 東西로 約 1 km 정도 뻗은 가운데에 네개의 山峰이 形成되어 있는데 東쪽에서 始作된 主峰이 서편마을의 뒷산이 되고 西端의 두 봉우리를 끼고 築城이 되어 있다. 이 山名을 五金山이라고 부르는 데 대한 傳說이 있다. 傳說의 內容은 百濟의 武康王이 山下에서 生長

하였다는 것이며, 그가 어머니를 奉養하느라고 山에서 마(山薯)를 캐다가 五金을 얻었기 때문에 五金山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마(山薯)의 傳說에 의하여 武康王의 兒名을 「마동」·「말동」·「薯童」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말동이 가 멀리 新羅에 마를가지고 가서 善化公主를 誘引하였다는 薯童謠說話는 마침내 말동大王과 善化公主가 이 五金山에 城을 쌓고, 五金山 밑에 五金寺를 세웠다는 것이며, 金馬의 南쪽 王儉里에 城을 쌓고 五層石塔과 伽監을 세웠다는 것이며, 金馬의 北쪽 彌勒山 밑에 東洋에서 第一 큰 伽監과 石塔을 세웠다는 說이 있게 되었다. 이 說話의 主人公 말동大王이 곧 百濟武康王이라는 것이며 武康王은 곧 百濟의 武王의 異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五金山城이나 王儉城은 다같이 百濟 武王이 築造라는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五金山城의 東方, 約 1 km 地點에 있는 두개의 王墓는 百濟의 武王과 善化公主의 墓라는 見解가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王墓는 옛날 金馬에 都邑을 定했다는 馬韓王 箕準의 墓라고 하여 奇氏, 韓氏, 鮮于氏의 三姓이 이 墓에 享祀까지 받들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側面에서 볼 때에는 彌勒山の 箕準城은 말할 것도 없고 王儉城이나 五金山城까지도 馬韓時代의 箕準城이라고 보게 된다.

彌勒山城이 箕準王의 築城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史書에도 記錄되어 있는 것이지만 近來의 學界에서는 箕準城이 馬韓의 箕準城이 아니라 百濟의 築城이라는 說이 提示되고, 王儉城도 昨今에 實施되고 있는 發掘調査에서 이 築城이 百濟末期를 넘어갈 수 없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렇다고 斷定하는 確證을 보지 못하고 있다.

五金山城에 있어서도 앞에서 論學한 바와 같이 百濟末期의 임금 末童(武王)의 築城說이 있는가 하면 이城은 馬韓時代의 築城이라는 異見이 맞서고 있으며, 여기에 또한 高句麗의 復興運動을 일으킨 報德國王 安勝의 本據地가 이곳이라고 하여 이城을 「報德城」으로 보게 되어, 結局 한 개의 城址에 대하여 세가지의 見解가 붙게 되었다.

이 세가지 見解에 있어서 五金山城이 百濟의 末童大王이 쌓은 것인지

그보다 앞서 馬韓代에 쌓은 것인지는 보다 調深한 考證이 있어야 하겠지. 다만 이 城을 報德城으로 보는 데에 있어서는 五金山城이 百濟의 末童이 築城한 것이든지 馬韓代의 築城이든지간에 當時 新羅의 善心으로 이루어진 報德國에 대하여 이미 쌓아져 있는 城을 占有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현재 이 地方에서 五金山城이 곧 保德城이라고 보게 되고 또 이러한 內容으로서 文化財의 登錄까지 하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 筆者는 五金山城이 곧 保德城이라고 본 것은 큰 錯誤에 犯하였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理由는

첫째로 從前의 文獻上에서 볼 때에 五金山城과 保德城은 그 所在의 記錄이 같지 않고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로 五金山城이 곧 保德城이라는 文獻이나 또는 現實로써 提示할 만한 何等의 證據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五金山城에 대한 傳說과 文獻이 서로 맞지 않고 信憑성이 稀薄한 것을 들 수 있다.

넷째로 筆者가 文獻上으로 五金山城과 保德城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證據를 얻게 되고 이에 대한 現實的 證據까지 들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具體的인 事實을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의 理由에서 볼 때, 東國輿地勝覽에서는 五金山은 「在郡西三里」라고 하였고 報德城은 在郡西一里今遺址僅存이라고 하였다. 輿地圖나 文獻備考·金馬志·益山郡志의 新舊編에도 다같이 報德城의 所在과 한결같이 「郡西一里」로 되어 있다. 그리고 五金山은 郡西三里로 되어 있다.

筆者가 앞에서 五金山의 位置는 金馬의 옛날 印治所인 中央地를 基點을 하여 北西一里에 있는 서편 마을의 主山으로 始作하여 西쪽으로 約三里的 陵線이 펼쳐 있는데 그 西端에 五金山城이 있다는 것을 말한 바 있다. 여기에서 五金山城은 郡西三里밖에 位置하여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分明히 即西三里밖에 있는 五金山城과 郡西一里에 있다고 못박히듯 明示하여 있는 報德城을 한가지로 보아 五金山城이 곧 報德城이라고 하는 內容에는 무엇인가 이 가운데서 제대로 보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疑問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地方 사람들이 여기에서 너무나 屯感하였다. 그리하여 近來에 地方誌를 쓰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五金山城과 報德城을 混同視하는 無責任한 態度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일찌기 이에 대한 疑問을 가지고 이의 解決을 試圖한 사람은 倭政時代에 京城帝大教授로 있던 今西龍博士였다. 그는 모든 文獻에 郡西一里로 되어 있는 報德城은 郡西三里에 있는 五金山土城과 別個의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는 생각을 가지고 五金山城쪽으로 市內의 가까운 곳에 어떠한 城址가 있는가를 探索하였다. 그러나 이를 찾지 못한 그는 마침내 報德山城의 郡西一里라는 記錄里數의 誤記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山城이 있는 五金山의 距里를 말할 때에 五金山의 東麓이라 서편마을의 後麓을 市內에서 一里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더욱 調査할 必要를 느낀다고 하였다. 그는 어떤 사람의 말에 五金山에 있는 西峰은 報德山이고 東峰은 眞의 五金山이라고 하는데 이는 不當한 說이라고 看破하였다.

筆者도 數年前에 비로소 各文獻에 五金山과 報德城의 記錄이 距里上에 差異가 있게 記載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에 대한 關心을 가지게 되었다. 事實 이를 알기 전에는 이 地方사람들에게 듣는 通常의인 말에 의하여 五金山城이 곧 報德城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뒤에 筆者는 近來에 發刊된 益山郡誌를 보는 가운데 金馬에 「猪土城」이라는 城 이름이 나오는데에 着眼이 되었다. 이 猪土城이 어디에 있는지는 것을 調査한 結果 猪土城은 五金山의 東端끝짜기에 5, 6戶의 部落이 되어 있는 곳을 「돛토성」이라고 하는데 이 돛토성을 漢字로 쓸 때에 돛을 「猪」字로 意譯하여 猪土城으로 記錄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돛토성은 앞에서 말한 金馬의 서편마을에서 약간 北쪽으로 올라가서 있는데

金馬市內에서 1km 未滿 옛날里程으로는 一、五里안에 있다. 筆者는 이 돛토성이 郡西一里라고 보는 報德城의 別稱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여 여기에 城址의 有無를 調査하였다. 그런데 이 골짜기 周邊에는 城址의 跟跡을 發見할 수 없었다. 이곳 金馬의 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돛토성은 곧 五金山의 西端에 郡西三里에 있는 五金山土城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이 土城이 곧 末童大王이 쌓은 五金山城으로서 報德國의 本據인 報德城이며, 이 城을 돛토성이라는 名稱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主張에는 文獻의인 證據나 現實의인 立證이 없는 全혀 推想的인 判斷에 不過한 것이다.

猪土城의 問題는 筆者로 하여금 五金山城과 報德城에 대한 疑惑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就中 지난 봄에 高敞郡 星內面 槽東里 黃氏宅(李朝、英、正祖時에 出現한 實學者 黃胤錫의 後裔)에서 入手된 太平散人 廣侯晉著「臥遊錄」은 金馬의 五金山城과 報德城의 位置를 明確하게 가리키기 위한 直接探査에 나서게 된 動機가 된 것이다.

臥遊錄은 正祖때 사람 廣侯晉이 國內의 名勝古蹟을 探歷한 手記이다. 이 가운데에 「遊金馬城記」라고 해서 金馬地域의 重要한 文化遺蹟을 探査한 記錄이 있다.

이 內容에는 金馬地域에 있는 王儉城과 王宮塔·五金山土城·彌勒寺址의 彌勒塔 그리고 彌勒山위에 있는 寺菴과 箕準城등을 探査한 記錄이 있다. 探査內容은 그가 現地에서 직접 보고 들은 事實을 記錄하면서 그곳에서 自身이 느끼는 所感和 諫釋까지도 적은 것이다.

그의 探査方法은 아주 仔細하면서 가장 重要한 問題點을 들추어 理論的이며 科學的인 方法을 并用하는 가운데 眞髓를 터득하는 것이며 투철한 考古의 意識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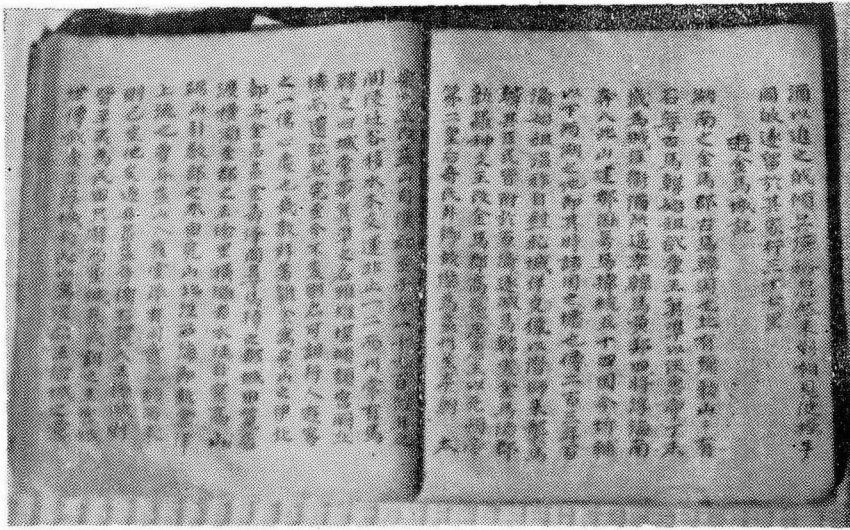
예를 들면 王宮塔을 踏査하는데 城址가 모두 평치지고 民田으로 化하였고 여기에 다만 二重城의 基台만이 남았다는 것이며 「王儉城則 皆東夷爲民田只有兩重城基」、城石이 모두 다 들어진 돌인데 이것 이 모두 愚民들에 의하여 拔掘되고 겨우 形址만 있었다는 것이다. 「城

石多被 愚民拔掘 僅有形址而其石皆經鍊琢」。城址의 돌레에는 기와장과 그릇 깨어진 조각이 발터덕에 수없이 쌓여 모두 거문칠그릇으로 만들어져 그 形制가 質朴하였다. 그리고 기와는 안팎이 동글게 된 것이 당시의 제도와 다른 것이 없고 高句麗의 길고 붉은 기와에 비기면 다르다는 것이다(周行四隅 頽瓦敗器之複積於田畦者無數 率用黑陶造成而形制吉朴 瓦則陰階皆圓 與今制無別 以高句麗長赤之豔比之則 可謂異矣) 여기에서 그의 古蹟探識의 뛰어난 識識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이 城이 옛날 武康王이 쌓았다고 해서 王儉城이라 부르고 또 當時에 國王이 여기에 宮室을 세웠다고 해서 王宮城이라고 부른다고 傳하지만 어떤 말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慎重한 態度를 보이었다. 그러면서도 여기가 옛날 馬韓王이 游幸하여 聽政하던 곳이였으리라는 뜻을 말하고 후 無知한 사람 들이 구(마)通大王이 武康王의 말을娶하여 여기에서 살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틀린 말이라고 하여 自身이 보는 歷史的 經緯의 所信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此蓋韓王游幸聽政之所而無知者謂子通大王娶武康王之女爲妻此爲其時子通所居云者不經太甚」。 그의 一行三人이 「王儉塔」이라고 부르는 五層石 아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때 한 農夫가 곁에와서 그 뒷산에 있는 三個의 臥牛石을 가리키면서 이에 대한 傳說을 이야기하여 주더라는 것이다. 農夫는 다시 西南쪽의 두개의 土城을 가리키면서 저 土城은 구(마)通大王이 平民으로서 거기에서 살았을 때 작은 堡壘으로 쌓은 城인데 그가 거기에서 말을 갈다가 다섯개의 金덩이를 얻어 王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뒷사람이 여기에 寺刹을 세우고 五金寺라는 名稱을 하였는데 지금은 빈터만 남았다는 말을 하였다. 「有五層石塔 塔名王儉三人鼎坐其下 共吸煙草胡言相謔有一農指厥後山曰此上有三石名臥牛(中畧)又指西南二土城曰子通大王微時築小堡居此躬自耕耨得金五錠目爲王孀故後人立寺於此名五金今只有遺基」

여기에서 筆者에게 가장 重要한 가르침을 준 것은 五金山쪽에 두개의 土城이 있었다는 記錄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두개의 土城이 어느 곳에

圖一、太平散人斗臥遊錄에서 본 遊金馬城記



圖二、金馬都土城址



圖三、都土城出土瓦片들



어떠한 形式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記錄은 없다. 다만 이 城에 대한 記錄에 薯童의 傳說이 붙어 있고 薯童은 百濟武王의 小名이며 구通大王이라고 부르는 것도 薯童의 轉音이 마동대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薯童이가 王女와 더불어同居하였다는 說話는 당치않은 荒唐한 說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誌云 百濟武王小名薯童 所謂于通者即薯童之轉 然則王女同居之說 經庭太甚而爲馬韓屯兵之地可知矣」 이와같이 薯童說話를 否定하는 康侯晉은 王儉城이나 五金山城이 다같이 馬韓時代에 屯兵한 곳이라고 斷言하였다. 그리고 馬韓時代에는 寺塔의 建立이 없었다는 理由를 들어 여기에 세워진 石塔은 東沃沮以後 百濟時代에 세운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蓋石塔之建兆 自東沃則 馬韓之世元無形影之可言也 城又是當時率兵偵賦之處而寺乃百濟之所立也」 薯童說話를 그대로 받아드리지 않는 康侯晉은 彌勒塔建立에 얽힌 善化夫人과 新羅眞平王의 創寺助役關係의 說까지도 否認하는 態度가 彌勒塔의 探查記錄에 나타나고 있다. 彌勒塔의 建造는 世傳에 百濟武康王의 夫人善化가 彌勒山 밑 큰못가에 三彌勒이 出現한 것을 보고 여기에 創寺할 뜻을 두고 王의 許諾을 얻고 獅子寺의 住持 知命法師의 도움을 빌어 못을 메우고 伽藍과 石塔을 세울때에 新羅의 眞平王이 百工을 보내어 助役을 하였다고 하는데, 歷史上에 新羅의 眞平王은 百濟의 威德王과 한때의 임금이거늘 武康王 때에 眞平王의 助役이 있었다는 것은 時期的으로 맞지않는 虛誕한 말이라고 하였다. (類山墳地 初建佛處 又作三彌勒像 新羅眞平王 聞之遣百工助其役 考諸東史 眞平之爲王 與百濟威德王并世 是唐隋之際 則武康之時 眞平之助役云者 甚是虛誕)

以上에 든 康侯晉의 王儉城과 塔寺, 五金山城, 彌勒寺 등의 建立에 대한 意見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現在에도 이 方面의 研究에 是非論考의 俎上에 오르고 있는 問題들은 立論한 것만도 그저 看過해 버릴 無意味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五金山二個土城의 提示는 筆者로 하여금, 이미 알려지고 있는 五金城土城의 밖에서 問題의 報德城과 猪土城을 찾아나가는 데에 길잡이가 된 것

이며 또한 이에 대한 疑心이 풀리고 確固한 信念을 가지게 되는 契機가 된 것이다.

筆者는 一九七八년 四月부터 金馬의 城趾探查에 나섰다. 처음에 눈은 돌린 것이 五金山東端에 있는 道托성골짜기였다. 이 道托성골짜기를 形成한 周圍의 山陵線은 城을 쌓을만도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築城의 痕跡은 볼수 없었다. 道托성의 南쪽 高地에는 金馬에 本營을 둔 二七聯隊에서 上水道施設의 作業에 의하여 山陵線의 옛모습을 볼수 없게 된 것이 안타까웠으나 이 들레를 여러모로 探索하여도 城趾의 흔적은 없었다. 報德城이 郡西一里에 있다는 文獻을 重視하고 道托성골짜기의 南쪽에 連繫되는 西邊마을(通稱「서편말」이라고 함)의 뒷산 골짜기와 능성을 살살이 찾아보았으나 성터라고 볼만한 흔적은 없었다. 이밖에 五金山의 南쪽과 북쪽 全體의 山地形을 두루살펴보았으나 城址로 볼만한 것이 없었다.

다음에는 探查의 눈을 五金山의 東쪽 金馬의 北西方面에 있는 古대 성 뒷산과 乾馬山으로 돌렸다. 古대성 뒷산은 金馬의 正北에 金馬市の 主山이 되고 있는 乾馬山과 五金山의 사이에 있는 높이 一〇〇m 以內에 總面積三、四町以內의 작은 산이다. 彌勒山 箕準城 東쪽에 原脈을 두고 앞으로 微微하게 번어내린 陵線이 여기에 골을 맺으면서 약간 높은 봉우리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形成된 봉우리는 南쪽과 東쪽에 두 팔 모양으로 벌어진 支陵은 이 봉우리의 東南쪽에 ㄷ字形의 작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 이 山峰의 傾斜는 北쪽으로 이산의 來龍으로서 이 산봉우리에 連接된 곳과 여기에 東쪽으로 펼쳐진 約八〇m 정도의 支陵 그리고 南쪽으로 펼쳐진 約五〇m 정도의 支陵이 連接된 部分을 除하고는 大體적으로 六〇度以上の 急傾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백명의 兵卒을 두고 外敵의 侵入을 防禦守備할만한 城塞를 構築할 수 있는 天然의 地勢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이다. 이러한 地勢를 利用하여 이 山의 층턱에 터를 두르듯이 二重, 혹은 三重의 階段이 作成되어 있다. 이 階段 모양으로 된 것이 원래 이 산을 城柵으로 만들때에 山峰에서 아래로

五m(七m쯤되는急傾斜의城壁을 만들고 그밑에 約五m(六m넓이의濠를 두른것이 倣久한歲月에 原形이 망가지고 한갓 二、三重의階段모양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階段이 위에로부터 汗層은 산봉우리의周圍를 完全히 두르고 있지만 二層三層의階段은 北쪽의主脈으로 내려온陵線과 北쪽陵線部分에서 東쪽으로 갈라져 뻗어 내린支陵의連接한 以外の山中間部分에 둘러져 있다. 그리고 北쪽의主脈陵線에서 東쪽으로 뻗어 내린支陵線上面에는 당장 모양으로城柵을 쌓아내린 흔적이 남아 있다. 이와 對峙하여 南좌로 뻗은支陵線上面도 이와같은 當장의城柵을 쌓았을 것으로 짐작되나 지금은 여기에 墳墓가 있고 여기에 오르는通路가 되어 옛날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東쪽과 南쪽支陵의中間골짜기의 앞에는 東南支陵의 當장城柵을 連結하는 當장이 쌓아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은 여기에 人家와 田土로 化하여 옛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이 골짜기 안에는 옛날에 數個의 建物이 있던 흔적이 있고 옛날에 使用한 石泉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옛날 여기에 官舍나 兵舍, 혹은 僧堂의 어느 것이던지 있었으리라는 追想을 하여 볼 수 밖에 없다.

이 古대석탑신의 城址는 外面으로 보아 五金山의山城과 恰似하게 되어져 있다. 다만 이 두城의 差異를 볼 수 있는 것은 五金山城은 土城이라고는 하지만 그 基臺를 積石으로 하였다. 이 積石은 基臺를 一m以上の 길이로 파고 여기에 상당히 큰돌을 쌓는데 돌과 돌사이의 틈을 황토흙으로 메워가면서 堅固하게 築積하였다. 밖에 들어나는 壁柵도 돌과 흙을 섞어서 돌담식으로 쌓았던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이 古대석뒤의 土城은 天然의으로 된 산의急경사를 利用하여 城柵을 만든 純粹한 土城으로 된 것이다.

五金山城은 주위가 約九〇〇步인데, 古대석의 토성은 주위가 六二〇步로서 五金山城에 비하면 三分의二가 된다고 하겠지만 古대석土城은 東南골짜기에 周圍約五〇〇步의 別城이 있었다고 보면 五金山城에 못지 않은 城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完全하게 形成된 城址기 名稱도 없고 지금까지 一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異常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여기 다음 몇가지의 理由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첫째로 이 城에 대하여 一般的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 城이 문에 가까웠던 關係도 여기에 城院壇과 厲壇등을 設置한 일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亭子를 세워 園地와 같이 되는데도 있어 古城의 名稱보다 이 안에서 使用되고 있는 名稱이 더 浮刻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구체의 인례를 들면 이산을 성황산, 여단재, 향정산古대석 등으로 부르게 됨에 따라서 옛날에 부르던 古城의 名稱은 점차로 희미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지금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土城의 중턱에 階段과 같이 둘러져 있는 것이 옛날 이 地方出身의 名士 蘇良谷이 여기에서 말을 달린 訓練場이라고 한다. 이는 한때 이산이 선비들의 遊園地로 되었던데서 緣出된 傳說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산은 長久한 時日을 통하여 古木과 老松이 울밀하였다. 지금도 그리 큰 樹木은 없지만 樹木이 가리어서 城地의 階段이 있는 것도 잘 들어나지 않는다. 以上과 같은 몇가지의 事例는 이 土城에 대한 印象을 흐리게 한 要件이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음은 이 城의 名稱에 대한 筆者의 見解이다. 筆者는 이산의 名稱은 「도토성」이었다고 본다. 원래 이 城에 대한 명칭이 없을리는 만무하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城에 대한 印象이 흐려짐에 따라서 본래에 있던 城名도 自然히 흐려진 것이다. 筆者가 이 古대석土城을 探查하는 中間에 알게 된 일이지만 五金山의 東쪽골짜기에서 애타게 찾던 도토성은 원래는 五金山東쪽골짜기가 아니라 이 古대석城 뒤에 있는 골짜기를 이름하였다는 것이다. 처음 이 古대석山城의 바로 뒷편 골짜기에 몇戶의 人家가 있게 되므로 사람들이 이곳을 「도토성」이라 불렀는데 뒤에 그 서쪽으로 몇배마다 떨어진 五金山東端골짜기에 몇戶의 人家가 있게 되므로 이 두마을은 行政上에 하나의 部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양쪽골짜기를 다 같이 「도토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도

토성이」라는 마을의 명칭이 된 것은 도토성의 뒷뜰짜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되며, 「도토성」의名稱은漢字로「都土城」이 되어 바로「都邑」에 가까운土都· 또는「都城」의 뜻을 갖는土城 혹은「都城의 役轄을 하는 土城」이란 뜻에서 이루어진名稱이라고 생각된다.

倭政時에 朝鮮總督府古蹟調査委員會에서 施行한 益山地方의 古蹟調査에 의하면 舊益山郡의 北方 城隍山上에 周圍約4町의 土城이 있다」는 記錄이 있다. 이「城隍土城」은 곧 이 군대십토성을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한 證據는 다른 文獻에도 益山の 郡北에 城隍壇을 두었던 것이 記載되어 있고(湖寺色法等參照)이 城隍壇은 李朝末期까지 殘存되어 있었던 것이 이 地方의 古老들도 알고 있는 事實이다. 여기에서 이 山城의 명칭은「城隍山城」이라고 불렀던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옛날에 各地方의 城隍壇設置을 보면 옛날 治所의 都城안에 城隍壇을 두는 例를 種種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城隍壇과 山城은 城字의 뜻에서 어떠한 關聯性을 갖는 思想이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된다. (古阜의 城隍土城 등 古城반론)

以上에서 金馬의 西北近境에는 五金山城과 都土城의 두개 城地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두개의 山城이 어느 때에 누구에 의하여 築造된 것인가에 대한 考證은 내리지 못하였다. 筆者에게 대한 考證의 能力이 없음을 스스로 認識하고 있다. 그러나 五金山城이 舊童이가 쌓았다는 傳說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 五金山城이 곧 報德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 그理由로서는 앞에서 報德城과 五金山城에 대한 文獻上의 距里부터 다르다는 것을 들기도 하였지만 또한 한자의 理由를 들면 五金山에 대한 文獻이나 傳說에는 百濟의 末童大王(武王)이나 馬韓時에 올라가는 記錄은 있어도 高麗末·統一新羅代의 安勝에 대한 說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편 五金山城이나 都土城에서 出土하는 瓦片과 器皿에 百濟의 것이 發見되는 것은 두 城이 모두 百濟代以上으로 推定할 있다.

군대십「都土城」에서는 王儉城에서 發見되는「上卍大官」이란 명문이 새겨진 기와장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는 都土城에서 王儉城의 옛날 기와를 옮겨다가 쓸 수도 있고 五金山城에 허터진 옛날기와를 갖어갈 수 있다고도 하겠지만 그러 以上의 世城에 나오는 遺物에 같은 것이 있다면 이 世城은 그리 久遠한 差가 없는 時代에 相互流通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筆者는 以上의 世城에서 가장 오래된 城을 말하라면「都土城」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城의 構造上에서 볼 때에 都土城이 가장 素朴한 土城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찌면 이 城이 金馬에서 馬韓五十餘國을 總括主 導하였다는 日文國의 都城이 아닌가 하며 그러한 뜻에 都土城이라는 名稱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이다.

그리고 이 세개의 城이 다 같은 時代의 것이라면 五金山城은 彌勒山の 箕準城과 같이 金馬의 王都를 外部에서 守備하는 농성으로서 有事時에 軍隊가 屯駐하는 外城으로 設置된 것이며, 군대십의 都土城이나 王儉城은 때로 國王이 머무를 수 있는 別宮이 設置되고 軍隊가 恒時 屯駐하여 都邑의 守衛를 담당하는 城이었다고 생각한다. 여기 한가지 心證이 되는 것은 이 都土城의 아랫마을 名稱을 향경이라고 하는데 향경은 옛날 香亭이라고 부르던 名稱이 訛傳된 것이다. 얼마전에 이 군대십의 뒷산에는 番亭이라고 새겨진 碑銘이 出土되어 현재 향경마을에 居住하는 蘇素永氏宅 花壇에 保存되어 있다. 前扶餘博物館長 洪思俊先生의 말에 의하면 百濟時代에 軍隊가 常駐하는 都城이 있는 마을에는 반드시 亭字가 붙어 있는 香亭, 松亭, 土亭 등의 名稱을 보게 된다는 것이며, 新에서는 停字가 붙는다는 것으로 보아도 都土城을 金馬의 國都를 保護하기 위하여 軍隊가 常駐하던 鎮城이었. 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위에서 都土城에 대한 陋見을 대강 論하였거니와 앞에서 問問가 되어 있던 報德城의 位置는 어대인가를 가리지 않았다. 이제까지 都土城의 發見을 말하였지만 이 都土城이 報德城이라는 證據도 들어나지는 못하였다. 허지만 이 都土城이 報德國에서 國都의 本據地로서 使用한 都城

이 아닌가 하는 心證만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한 論據는 報德城이「崑
郡西一里遺址僅存」이라는 東國輿地勝覽의 記錄을爲始하여 모든 記錄이
이와같은 것으로 본다면 金馬附近에 郡西一里에 位置하는 城址는 오직
이城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가지의 心證은 앞에서 言及한바있드시 五金山城이나 王儉城·都
土城이 모두 高句麗가 亡하기 以前 百濟代에 築城한 것이오 安勝代의
築城은 아니라는 것을 論證하였다. 그리고 支獻에 記載된 대로의 郡西
一里에 安勝이 營은 報德城이라고 불만한 것은 전혀 없다. 그러다면
新羅에서 安勝에게 百濟에게서 얻은 城을 주고 國號를 주어 待遇를 하
는 바에는 何必 住居에 不安하고 金馬에서 떨어져 있는 山上外城을 주지
는 않았으리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史書에서 보면 이때 報
德國에는 高句麗의 遺民 四千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는데 萬一에 五金山
城을 都城으로 하였다면 이 山城의 附近에 巨大한 邑地가 形成되었을
것인데 지금 金馬市の 밖에 五金山부근에서 이러한 遺址가 있었으리라
는 것을 생각할 곳이 없다. 이러한 생각에 都土城은 한때 金馬를 中心
으로 하는 작은 國都의 都城으로 適宜한 곳이라고 보여진다. 어찌면 都
土城의 東쪽 골짜기가 작은 堡城의 遺址와 같이 보여지는 것은 여기에
報德國의 本營이 設置되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도 되
어 있다. 어쨌든 이 곳대십의 土城은 어느편가 한개의 國都에서 都城으
로 使用된 事實이 있어서 都土城이라는 名稱이 된 것이라고 할때에 이
城은 報德國의 都城으로 보아야 할 것이오 이렇게 볼때에 從來의 모든
文獻에의 한 報德城의 位置에 異論이 없으리라고 생각 된다.

以上에서 金馬의 都土城의 發見으로써 五金山城과 報德城에 얽힌 疑或
을 풀어 보았다. 이 論證이 옳고 그른 것은 앞으로 보다 더 여러사람의
細密한 調査研究가 있는 뒤에 判斷이 될 것이오 또한 이 都土城에 대한
研究는 이 方面에 專門學의 研究叱定이 要求된다. 筆者는 여기에서 畵
餘를 쓴 太平散人康侯晉의 德澤이 컸다는 것을 感謝드린다. 끝으로 康
侯晉의 彌勒寺址 探查記에 距今二〇〇年前의 彌勒塔은 七層이 남아 있

었다는 事實과 距今三〇〇年前에 彌勒塔의 落害에 의혀 崩壞되었다는
實實은 彌勒寺의 研究에 高貴한 資料를 提示한 것을 더욱 感謝하게 생
각한다. 「田畦中有七層石塔極共高大皆用石屏累疊粧成毀以石柱文共四隅
世所謂東方石塔之最者非虛語也百年前國霹靂毀其一半而下有石門能通出入
道與三人國入逝玩綠面壁陟塔上有數三農人挾田器臥於其上」

(全北大學校 博物館長)